

코스콤 노사 “자본시장 IT 선도하겠다” 협약식

»» 프레스룸

금융IT 발전을 위한 코스콤의 다양한 활동들을 빠르게 알려 드립니다.

- 민간출신 홍우선 사장 “직원 뜻 모아 코스콤 발전 기여 노력”
- 노동조합 박효일 위원장 “선진노사문화 구축할 것”



코스콤 노사상생 협약식 사진

- 코스콤 경영진과 노동조합이 손을 잡고 앞으로 회사가 자본시장 IT 선도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.
- 홍우선 (주)코스콤 사장과 박효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코스콤(한국증권전산) 지부 위원장은 10일(목) 앞으로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11일(금) 밝혔다.

- 이번 협약으로 노사는 국내외 경쟁이 심화중인 금융환경과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속에서 코스콤이 디지털금융 혁신 기업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.
- 또한 노사는 선진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상생의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.
- 더 나아가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and 직원복지 증진을 위해 협의하고,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.
- 박효일 위원장은 “면담 결과 선임 과정이 절차대로 진행됐고 CEO의 금융·IT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”며 “무엇보다 낙하산 인사가 아닌 만큼, 자본시장 내 모범이 될 수 있는 노사문화를 구축하겠다”고 말했다.
- 홍우선 사장은 “지난 20여년간 금융·IT회사 CEO를 역임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코스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히며 “직원들의 뜻을 모아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”고 답했다.

[첨부] 코스콤 노사상생 협약식 사진

▷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www.koscom.co.kr